

“문 대통령 종전 선언, 평화통일 이루는 첫걸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전북·전남 회의
이석현 수석부의장 특강**

‘남북 대화의 발자취와 종전 선언’ 주제
지역 협의회장 임명·실적 및 계획 발표
“담론 형성·여론 수렴·홍보 활동 당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평화 통일의 길을 모색하고 앞으로 활동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2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북·전남 제20기 국내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6선 국회의원 출신의 이석현 수석 부의장과 김선남 광주 부의장, 홍종식 전북 부의장, 조옥희 전남 부의장을 비롯해 각 지역 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광주 5개 구와 전남·전북 시·군 협의회장에 대한 임명장 전달식이 진행된 데 이어 이석현 수석 부의장의 ‘남북 대화의 발자취와 종전 선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이 이뤄졌다.

북한도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우리도 어느 정도 북한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전이 될 경우 주한 미군이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수석 부의장은 “북한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주변에서 언제든지 군사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주한 미군은 동북아 평화와 세계 정세 속 합의 균형을 위해 계속 주둔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남북 간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대화를 통해 진전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석 부의장은 “이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상회담 등의 방식을 통해 북한과 화해하고 관계 개선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며 “임기 전까지 장기적인 협력관계, 나아가 통일로 이어지는 길의 밑바탕을 마련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남북 간 종전 선언과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수석 부의장은 “대통령의 당부 말씀처럼 우리 민주평통이 평화통일의 담론 형성과 국민 여론 수렴, 홍보 활동에 적극적



2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전북·전남지역 제20기 국내 부의장·협의회장 합동회의’에 참가한 이석현 수석부의장이 ‘남북 대화의 발자취와 종전 선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70년 냉전의 세월을 종식하고 5,000년을 함께 살아온 한 민족으로 다시 뭉쳐 부강해진 대한민국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특별강연에 이어 제20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제20기 민주평통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활동목표로 삼아 4대 활동방향을 천명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자문 강화 ▲지역의 평화·통일 중심 역할 수행 ▲동포사회와 함께 평화·통일 공공의교 시도 ▲청년 세대의 평화·

통일 역할 강화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기회의 ▲자문위원 연수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시민교실 ▲우리고장 평화플랜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청년위원 활동지원사업 ▲여성위원 활동지원사업 ▲평화통일 특화사업 등 크게 9가지가 제시됐다. /오선우 기자

“광주 힘내세요” 지역사회 지원 잇따라

㈜호남지오영, 마스크 기부
㈜해양에너지, 2천만 기탁
전갑수, 1천만 후원금 전달

광주시는 29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주)호남지오영, (주)해양에너지,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과 연달아 성금품 기탁식을 가졌다.

(주)호남지오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기복을 위해 아동용 마스크 30만 장을 기부했다.

(주)호남지오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약 및 건강 유통 기업으로 (주)오영네트웍스 등의 독립된 법인을 통해 사업의 다각화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손석근 (주)호남지오영 사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과 아동복지시설에 이 마스크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질병을 예방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해양에너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기지원 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현장 지원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김형순 (주)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가스 안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은 광주 시장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및 전문체육지도자 포상 등에 써달라며 후원금 1000만원을 이용섭 시장(광주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전달했다.

전 회장은 직원 채용에 장애인들을 우선 선발해 기업 사회봉사에 남다른 뜻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체육발전기금 후원과 대학 실업팀 창단을 지원해 배구선수 육성과 체육인재 발굴, 배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9년에는 광주시민대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전갑수 회장은 “평소 장애인 체육활동에 관심을 가져준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후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취약계층인 아동,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나눔의 손길은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도, ‘곤충산업 육성 신기술 개발’ 총력

전남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식량자원 발굴을 위해 ‘곤충산업 육성 신기술 개발’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9일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곤충산

업은 미래 단백질 대체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혐오감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 않아 다양한 상품 개발과 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이 따라 도 농업기술원은 2022년에 식용곤충 5개 사업 25억 원, 양잠 10억 원, 꿀벌 5억 원, 치유농업 3억 원 7개 사업에 총 43억 원을 투입한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블루오션인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강기정 전 수석, 광주시장 선거 출마 본격 시동

중입자 가속기·메디컬시티 추진 등 제안

강기정 전 청와대 정부수석이 내년 광주시장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강 전 수석은 29일 ‘호남의 미래를 여는 7대 대선공약’을 발표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공약으로의 채택을 제안했다.

7대 대선공약은 ▲중입자 가속기 도입과 메디컬시티 ▲22세기형 디즈니랜드 ▲인공태양과 그린수소 미래인재양성 ▲아시아데이터터미널과 국가데이터센터 2단계 ▲국가 3대 환경산업 기후대기질 러스터 ▲대한민국 4대 공항과 천만 평

공항도시 ▲호남 HTX 수소광역급행망 추진을 발표했다.

강 전 수석은 ‘꿈의 4차병원’ 시대를 열어갈 중입자 가속기 도입과 ‘한국판 메이요클리닉’으로 대변되는 메디컬시티 조성 공약을 제안했다. 또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22세기형 디즈니랜드 추진과 데이터비즈니스 거점이 될 아시아데이터터미널과 메타버스 중심의 국가데이터센터 2단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대한민국 4대 공항으로 도약하는 1000만 평 공항도시 조성권 수도권 GTX에 버금가는 호남권 HTX 수소광역



급행망 추진을 제안했다.

강 전 수석은 전남더큐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더큐브 4차 온라인 상생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서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관점은 광역권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꿈을 찾아 떠나는 도시가 아닌 꿈꾸는 도시, 꿈이 실현되는 꿈틀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7대 공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기철 기자

정기 브리핑

이형석 “지자체 성인지 사업 저조”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의 성인지 사업의 예산 집행률 대비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을)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의 성인지 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산 집행률은 평균 94.9%로 높은 수준인데 비해 목표 달성률은 62.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함으로써 재정의 성평등 제고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참여정부때 도입됐고,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마련돼 정부는 2010년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성인지사업의 적절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데,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마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며 “대상 사업 선정 및 성과지표 마련,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CHARM HEALING SCALP CARE SOLUTION

참힐링

탈모 포기하셨다구요?
불만족시 환불해드립니다

두 피·탈 모 케 어 솔 루 션
모 링 가 환 | 모 링 가 샴 푸 | 은 팔 사 빗



NAVER

두 피 케 어 상 담 · 체 인 점 상 담
1588-7438